

뒤틀린 세계를 바라보는 냉소주의적 시선

커트 보네거트적 성숙을 위하여

이상운 | 소설가

리얼리즘적 소설풍토에 익숙한 우리 독자에게 보네거트의 기법은 괴로울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그의 뒤틀린 풍자 뒤에는 우리가 결국 직시해야 할 또다른 현실이 들어 있다. 인류 문명사에 대한 이 근본적 통찰이야말로 그를 계몽주의자로 만든 요소이기도 하다.



1922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태어난 보네거트는 1947년 《자동 피아노》를 쓰면서 소설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타이탄의 사이렌들》 《로즈워터씨, 신의 축복을》 등의 소설을 썼으나 과학소설가란 평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1969년 제2차대전 참전경험에 바탕한 《제5도살장》을 쓰면서 그의 문학적 실력은 진지하게 인정받았다. 이후 《제일버드》 《실뜨기》 등 모두 18권의 장편소설과 12권의 단편소설집과 에세이집을 남겼다.

보네거트는 '사전적 콜라주'라는 부제가 붙은 《팜 선데이》에서 당시까지 출간한 13권의 저서에 대해 스스로 평점을 매기고 있다. 그리고 우연인지 의도적인 결과인지 그가 A+와 A를 준 작품들이 하나만 빼고 모두 우리말로 번역됐다. 그것들을 번역 연도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5도살장》(김중훈 옮김, 을유문화사) A+, 《태초의 밤》(현중식 옮김, 중앙일보사) A, 《제일버드》(나영균 옮김, 오진출판사) A, 《저 위의 누군가가 날 좋아하나봐》(노종혁 옮김, 새와물고기) A, 《고양이 요람》(노종혁 옮김, 새와물고기) A+ 등.

부조리한 세계에 던져진 희극

이렇게 잘 선택해 번역을 해놓았는데도 왜 우리 독자들은 그를 즐기지 않는지 모르겠다. 흔히 '부조리적'이라고 얘기되는 그의 세계관이 부담스럽기 때문일까? 하긴, '이봐! 우주에 우리 인간을 언제까지고 봐주는 든든한 뺨 같은 건 없다구. 그러니 꿈 깨!'라는 주장이 좋을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먼 훗날 태양의 물락과 함께 지구는 결국 파멸하게 돼 있다. 그때까지 인류가 자멸하지 않고 살아 남더라도 말이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보네거트의 가르침이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할 것

이고, 그만큼 문명의 비참한 재난도 줄어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한편, 우리 독자들은 리얼리즘적 코드에 깊이 중독돼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보네거트의 수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텍스트를 현실처럼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환상을 타파하는 보네거트의 기법들은 고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지적 웃음에 인색한 우리 문화가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된다. 우리 문화는 고급 웃음을 거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웃음(혹은 희극)이란 '거리'에서 생기는 것일 텐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 거의 즉물적으로 집착하는 지라 도무지 웃을 일이 없다.

그건 그렇고, 이쯤에서 그의 소설 《태초의 밤》(Mother Night, 1961)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이 작품은 20대 초반, 내가 처음으로 만난 보네거트인데, 모든 시간이 다 그렇듯이 전적으로 우연한 만남이었다.

《태초의 밤》으로 등장한 그의 첫인상은 묘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문장이 도무지 소설 같지가 않았다. 돌이켜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편향된 교육 때문에 나는 소설적 문장이라는 것을 시시콜콜한 묘사와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그것이 웃기는 편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처음의 묘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것이 좋았고, 재미있었고, 새로웠고, 내가 그를 알게 됐다는 것이 기뻐서 뿐이다.

인간 현실의 모순과 미성숙성 답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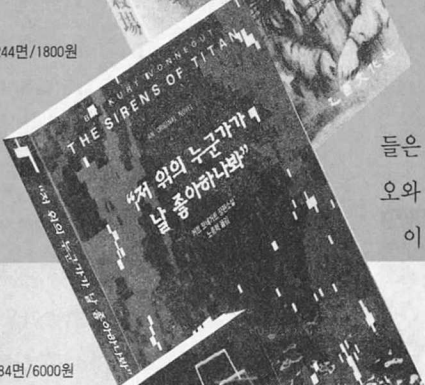
그후 내가 읽어낸 보네거트의 코드(혹은 의지)란 이런 것이다. 그것을 길다란 한 문장으로(따라서 숨차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시간이란 티끌 같은 우연의 연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망에 빠진 인간들은 그놈의 자유의 지리는 환상에 도취돼 온갖 어리석은 짓거리를 일삼아서 갖은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 바, 나 커트 보네거트는 전통적인 소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다양한 서사양식들, 예컨대 과학소설, 스파이소설 따위의 대중서사물들과 자서전, 취재기, 역사기록 따위의 논픽션 서사물들을 메타픽션적으로 활용하면서 블랙 유머를 기본 정조로 하는 내 소설에서, 저토록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동물을 마구 놀려 주겠다!'

보네거트의 코드는 《태초의 밤》에서도 확인된다. 하워드 W. 캠벨 2세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2차대전시 미국을 위한 스파이로 활동했으나, 지금은 전범으로 이스라엘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유투문화사/A5변형/244면/1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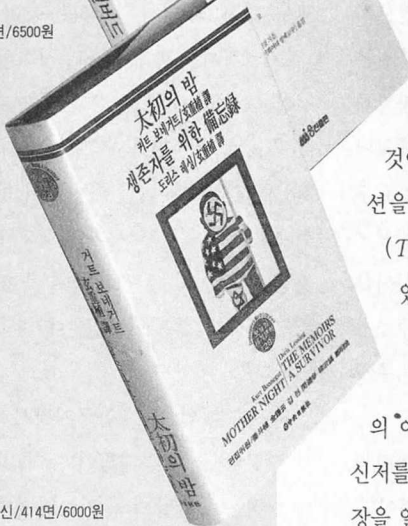
새와물고기/A5신/384면/6000원



새와물고기/A5신/304면/5500원



웅진출판/A5신/290면/6500원



중앙일보사/A5신/414면/6000원

하워드 W. 캠벨 2세가 쓴 '자서전'이 《태초의 밤》인데, 작품 곳곳에 책 이름, 신문·잡지기사, 편지, 법정 기소문, 가공의 시와 회고록 일부, 라디오 정치선전 방송 녹취록, 완구회사 선전 팸플릿 따위들이 배치된다. 보네거트는 《태초의 밤》에서 재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인간 현실의 근본적 결함과 미망을 그려 보인다. '진실과 거짓, 사실과 허구' 따위란 결코 절대적인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럼에도 인간들은 저런 편협한 이분법적 평가르기 때문에 증오와 광기에 사로잡혀 결국 대학살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한다는 것이다.

하워드 W. 캠벨 2세의 상황 자체가 인간 현실의 모순과 미성숙성을 상징한다. 그는 분명 악당 나치와 싸우는 미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는 배배 꼬여 버린다. 캠벨은 스스로 '진실이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미국 측에 은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거짓이자 허구라고' 생각하는 극렬한 반유대주의 라디오 선전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의 본의와는 다르게 후자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현실적 영향력을 갖게 돼버리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 통찰에 다다른 캠벨은, 전쟁과 전후에 겪은 비인간적이고 웃기는 일들을 하나 하나 회고하며 조롱해가다가 마침내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로 글을 맺게 된다. 그가 남기는 마지막 말은 '잔인한 세계여, 안녕!'이다.

인류사에 대한 잔인한 냉소

보네거트가 엮은 세계는 확실히 잔인한 것이다. 이 잔인함은 대중 장르인 사이언스픽션을 창조적으로 수용한 《타이탄의 사이렌》(The Sirens of Titan, 1959)에서 극에 달해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류사 전체를 한바탕 헛된 꿈으로 그려 보인다.

핵심 상황은 이렇다. 먼 옛날 우주 저편의 어떤 별 '트랄화마도르'는 '세일로'라는 메신저를 우주 끝으로 파견한다. 세일로는 중간에 고장을 일으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임시 숙소를 정하고 트랄화마도르에 메시지를 보낸다. 지구시간으로 15만년이 걸린다. 그러자 트랄화마도르에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트랄화마도르인들은

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지구인들을 이용한다. 그들은 어떤 파동을 만들어서 지구인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봉사하도록 조종한다. 지구인들은 물론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문명을 건설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세일로가 타이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읽어내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스톤헨지는 트랄화마도르 언어로 '교체부품이 가능한 한 최고의 속도로 가고 있음'을 뜻하고, 중국의 만리장성은 '조금 참을 것. 자네를 잊지 않고 있음'을, 모스크바의 크레믈린 궁전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제네바의 국제연맹은 '짐을 꾸리고 즉시 떠날 준비를 할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류 역사'까지 조종해 가면서 트랄화마도르인들이 메신저 세일로에게 실어 보낸 메시지란 무엇일까? 놀라지 마시라. 그것은 맥빠지게도 고작 '안녕하십니까' 일 뿐이다.

이런 냉소적 시각 때문일까? 나는 보네거트를 진지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소위 '진지한' 사람들을 더러 만난 적이 있다. 물론 나는 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진지함을 무게 잡는 것과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사람들일 뿐이다. 확실히 그렇다. 전방위적으로 체면과 권위의식에 포박된 한국 문화에서, 진지함이란 곧 가능한 한 무겁게 품잡는 것과 동의어인 것이다. 이들의 중독된 뇌도 보네거트의 글에 의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 의미의 계몽주의자

자, 이제 결론이다. 커트 보네거트가 그의 작품들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성숙성'이라고 이해하는데, 그의 풀이를 따르자면 성숙성이란 '쓰라린 실망'이다. 여기에는 수식이 붙는다. '혹시 웃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구제책은 전혀 없는 쓰라린 실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그를 '근본적' 의미에서의 계몽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

가을이다. 하늘은 푸르기가 눈물겹고, 도처에 낙엽은 뒹굴고, 나의 비상한 너는 여전히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붙잡고 있다. 성숙의 계절이라는 아름답고 쓸쓸한 이 가을, 보네거트의 웃음으로 각자의 '쓰라린 실망'을 달래 보기로 하자. ●